“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그것이 곧 문화”

59일 대장정 마친 이영혜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광주 문화자원, 세계 끌어안을 때 지역성 빛나

지역기업 디자인 마인드 부족…공동주관도 문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감상해준 관람객들에게 감사합니다. 관람객을 맞아준 디자인 작품들도 고맙습니다. 광주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담아 광주발 디자인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9일이라는 길고도 짧은 항해를 마친 이영혜(여·60·㈜디자인 하우스 대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총감독은 광주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나타냈다.

지난해 3월 총감독으로 선정된 그녀는 두 달간 열리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주에 대해 고민하며 애정을 쏟았다. 지역 기업들을 방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내·외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만나 논의하면서 기획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살폈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거시기, 머시기’도 이 총감독이 광주·전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얻어낸 결과물이다.

“광주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디자인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단순히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광주 발(發), 광주 포(抱)’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광주의 많은 문화 자원이 디자인이라는 결과물로 지역 밖으로 퍼지고, 세계의 디자인을 끌어안을 때 광주의 지역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올해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광주에 결과물을 안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주택시기사 유니폼과 쓰레기 봉투, 광주·전남 명품 쌀들에 디자인을 입혀 광주에 제안했다. 이 총감독이 내놓은 디자인은 광주시가 조만간 끌어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디자인이 된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 1~2곳이라도 성과를 얻었다면 그것도 큰 보람일 것이다. 우리는 디자인을 만들지만 디자인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발전시킨다. 그게 곧 문화다.”

이 총감독은 광주지역 기업들의 디자인마인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총감독에 선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지역기업들을 찾아다녔다. 기업들을 소개하고 디자인으로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하자’라며 많은 제안을 했다. 지역민들조차도 지역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역 업체들을 디자인비엔날레에 끌어들여 무엇을 만드는지를 소개하고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싶었다.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부분 거절당했다. 행사를 준비하며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디자인은 기업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디자인마인드가 없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담론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친숙하게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난히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찾았고, 관람객들은 “쉽고,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입장객은 줄었지만 유료 관람객이 17만5000명에 달했던 것도 성과다.

“디자인은 애정과 배려다. 그렇게 만든 디자인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줬다면 큰 성과다. 문화가 다 산업이고 자원이다. 우리는 50년 전, 100년 전 문화를 본다. 하지만 그것을 ‘그 당시의 문화’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는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문화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것이 앞으로 디자인비엔날레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가 공동주관하면서 생겼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주관 기관이 갑자기 재단과 센터로 양분되면서 힘들었다. 센터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재단도 나름의 요구를 해왔다. 예산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행사를 준비한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광주문예회관의 굴욕

지난 27일 밤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상하이 음악당(Shanghai Concert hall). 상하이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양 양의 손을 잡고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등장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본명 장영주)이다. 이날 사라 장은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사무엘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4’를 협연해 1200여 명의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상하이 출장길에 사라 장의 공연을 접한 기자 역시 진한 감동에 푹 빠졌다. 하지만 이날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상하이 음악당의 빼어난 음향시설이었다. 건립된 지 80여 년이 넘었지만 ‘고른’ 음향 전달과 최첨단 무대시설은 공연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였다.

사실 상하이 음악당이 처음부터 명품 공연장이었던 건 아니다. 지난 1930년 2층 규모의 영화관으로 건립된 음악당은 지난 2002년 인근에 고가도로가 추진되면서 철거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근대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하루에 5㎝씩 60일간 현재의 위치로 옮기는 ‘마법같은’ 리모델링 끝에 지난 2003년 6월 클래식 전용홀로 재탄생했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날(29일), 광주문예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 연주회를 관람했다. 그녀는 다소 생소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우아한 연주로 들려줘 ‘바흐 스페셜리스트’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광주문예회관의 30년 넘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속을 썩이는’ 바람에 리허설을 예정보다 2시간 늦게한 탓이다. 그녀의 공연을 돕기 위해 함께 온 피아노 조율사는 너무 오래된데다 수 년전 스타인웨이 정품이 아닌 값싼 부품으로 교체돼 ‘상태’가 좋지 않은 피아노를 조율하느라 3시간을 매달렸다. 통상 피아노 수명이 15년 남짓(하루 4~6시간 연주)임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다. 게다가 광주문예회관이 클래식 전용홀이 아니어서 ‘최적의 음향조건’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이날 시몬 디너스틴은 공연 내내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연주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뒤에서 겪은 ‘과거’(?)를 알고 있는 기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난 1991년 광주 유일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개관한 이후 음향과 시설 면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땜질’처방으로 그친 광주문예회관의 남루한 처지가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변변한 클래식 전용홀 하나 없는 광주. 30년 지난 스타인웨이 피아노로 버티는 광주문예회관. 아시아 문화허브를 꿈꾸는 예향의 현실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가을 동화’

김효삼 초대전 17일까지 아트타운 갤러리

오색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 화폭 속 목화가 머금은 탐스러운 솜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만 같다. 갈라지고 주름진 손으로 깎았을 법한 곶감에서는 가을바람과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진다.

아트타운 갤러리는 5~17일 수채화가 김효삼씨를 초대해 ‘달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전을 연다. 김효삼씨가 광주에서 5년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 가을을 담았다. 가을의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달콤하게 익어가는 곶감과 늦가을 봉우리를 터트리는 새하얀 목화 등 26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배롱나무 꽃잎과 처마밑에 비치는 낙엽 속에 담긴 남도의 가을, 운주사 와불에 염원을 담은 ‘통일의 꿈’과 같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광주·전남수채화협회 회장, 소나무 회원, 기독교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가을을 노래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을 연가’

문화신포니에타 앙상블 오늘 퀸스 컨벤션

‘문화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가을 연가’ 음악회가 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북구 매곡동 퀸스 컨벤션에서 열린다.

문화신포니에타 앙상블(지휘 양일오)의 ‘아리랑’, ‘아기 코끼리 걸음마’로 문을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가요, 가곡, 민요,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진희씨는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삽입곡을 선사하며 메조소프라노 신은정씨는 ‘스페인 아가씨’를 부른다. 또 이중창으로 ‘케 세라세라’를 들려준다.

바이올린의 문희연, 플루트의 손성아, 첼로의 박효은, 피아노의 나원진씨가 함께 한다. 문화신포니에타 단장 정병열씨가 해설을 맡는다.

문의 010-3645-1140/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술상’ 후보자 공모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우제길)가 8~27일 ‘제19회 광주미술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광주미술상은 지역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역대 수상자는 송필용, 이준석, 이이남, 김숙빈, 김진화, 진시영씨 등이다.

올해는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응모자격은 광주·전남 출신 및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8~24세 미만 미술인 또는 단체다.

응모를 원하는 미술인들은 응모원서, 포트폴리오(최근 3년 이내 창작작품 사진 등) 1권, 영상CD(10분 이내) 1매를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사와 시상식은 다음달 6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진행된다. 상금은 본상 1명 1000만원, 차석 2명 각 100만원이다. 문의 010-2608-273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